

Letterly

보스톤코리아 창간 20주년 기념, 온라인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English 작문 전문 교육기관인 Letterly와 손잡고 온라인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를 개최합니다.



Vol. 21 No. 998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March 14 2025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월가 애널리스트 출신에서 글짓기 교사 이후 에듀테크 CEO로 변신한 제인 첸 레터럴리 대표.(사진=제인 첸)

잘나가던 하버드 출신 월가 애널리스트, 글짓기 교사가 된 사연

제인첸, 월가의 애널리스트에서 에듀 테크 스타트업 레터럴리 창업까지 연7, 8만달러 사립학교 교육을 민주화, 내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욕의 명문 브루클린테크놀로지학교는 한국의 과학고에 해당하는 학교다. 까다로운 입학 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도 상당수 재학 중이다. 한 학년 학생 수만 약 1,500명에 달하는 대규모 학교다. 이 학교 학교 학부모회(PTA)는 글짓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레터럴리(Latterly Academy)와 협업으로 12학년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입학 에세이클래스를 개설했다. 첫해에는 200명이 등록했다. 두번째 해

에는 400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6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프로그램 시작 당시 학생들의 글쓰기 자신감은 5점중 2점에 불과했으나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4까지 향상됐다.

레터럴리는 이 같은 성공적인 글짓기 교육을 바탕으로 초기 학교이던 레터럴리 아카데미에서 에듀테크(EdTech) 플랫폼으로 도약했다. 현재는 뉴욕을 비롯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전 세계에서 약 3천 여명이 등록학생을 보유한 플랫폼으로 빠르

〈전체 기사 읽기〉

게 성장하고 있다.

레터럴리의 CEO 제인 첸(Jane Chen) 대표는 중국계 2세대. 하버드대 출신의 첸 대표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애널리스트로 일했던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10년간 충분한 돈을 모은 후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자 월가를 떠났다.

미국에서 출생, 중국에서 약 5년 거주하다 뉴욕으로 돌아와 학창시절을 보냈다. 뉴욕의 공립 초등학교와 어퍼웨스트사이드의 사립 중학교의 경험은 이민자인 첸 대표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높은 수준의 개인화된 고품질의 인문학 교육을 받기 위해 매년 7-8만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6면으로 계속

매사추세츠 전기 요금 4월 \$50크레딧 받는다

난방 천연가스요금은 3,4월 요금 10% 할인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수백만 가정은 오는 4월 전기 요금 청구서에서 50달러의 크레딧을 받게 된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10일 이 크레딧이 옮겨올 급등한 에너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조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주 정부에 따르면, 이번 크레딧은 주내 유틸리티 회사인 에버소스(Eversource),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 언틸(Until)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모든 가정용 고객에게 지급되며 총 규모는 1억 2,500만 달러에 달한다. 현재 매사추세츠주에서 내셔널그리드와 에버소스는 28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힐리 주지사는 “50달러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부담한 금액에 비하면 큰돈은 아니지만,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모든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전기요금은 물론 옮겨올 천연가스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큰 부담을 겪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이번 크레딧을 통해 즉각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크레딧의 재원 ▶▶7면으로 계속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버드 XR 2025 컨퍼런스, 현실과 가상을 결합한 확장 세계 만난다

하버드 GSD XR클럽 주최 4월 19일 하버드대학 건드홀에서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 대학교 디자인대학원 (GSD) 산하 XR 클럽이 주최하는 '하버드 XR 2025 컨퍼런스'가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하버드 대학교 건드홀(Gund Hall)에서 열린다.

'증강된 자아(The Augmented Self)'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인간 중심의 XR 기술을 통해 차세대 XR 혁신가들을 지원하고, 학생, 연구자, 전문가 및 기업가가

모여 다양한 산업에서 XR 기술이 어떻게 미래를 형성하는지 탐구하는 자리다.

XR은 확장현실(eXtended Reality)의 준말로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MR(혼합현실)을 비롯해 AI(인공지능), 로보틱스, 공간 컴퓨팅 등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확장된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을 뜻한다.

컨퍼런스에서는 XR의 역사와 현

〈전체 기사 읽기〉

재, 그리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과 도전 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이 기술이 비즈니스, 의료, 교육,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다룰 예정이다. XR 기술은 실제 세계와 가상 환경을 결합해 사용자의 감각과 인지 능력을 확장시키고, 기존의 한계를 넘어선 몰입감과 상호작용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행사는 *혼합현실 및 몰입형 현실 체험, *최첨단 CG/VFX 및 가

상 제작 기술 소개, *메타버스 및 디지털 컬렉터블 전시, *가상 세계 구축과 스토리텔링, *최신 XR 기기 직접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컨퍼런스에는 메타(Meta),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유니티(Unity)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며, 패널 토론, 기술 제품 데모, 네트워킹 세션 등이 진행된다. 특히 작년 행사에서는 500명 이상의 참석자와 30명 이상의 연설자, 20개 이상의 세션이 마련되어 큰 관심을 받았다. 참석자의 약 60%는 학생, 40%는 산업계 인사로 구성되어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함께 했다.

하버드 XR 클럽은 매년 이 컨퍼런스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습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과 글로벌 XR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참가티켓은 학생 \$45, 일반 \$65에 구매 가능하며, 컨퍼런스 일정, 연사 소개 및 참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https://harvardxr25.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정관장 제품, 메디케어 보험 OTC 카드로 편리하게 결제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메디케어 'OTC 카드'로 정관장에서 시니어 메디케어·보험 비처방 일반 의약품과 건강관련 제품들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일레벤스(Elevance), 몰리나(Molina), 센타라(Sentara), 파트너스 헬스 플랜 (Partners Health Plan), 앨라이얼라인(Ally Align), 아메리칸헬스플랜(American Health Plan), WVSA 7개 보험사의 OTC 카드로 구매가 가능하다.

OTC 카드는 메디케어 보험 선불형 데빗카드이며 상기 7개 보험사의 OTC 카드를 사용해 정관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건강식품 제품들을 결제할 수 있다.

정관장은 벌링턴 H마트 내에 위치하고 있다. 정관장 제품에 관한 문의는 781-238-0303으로 하면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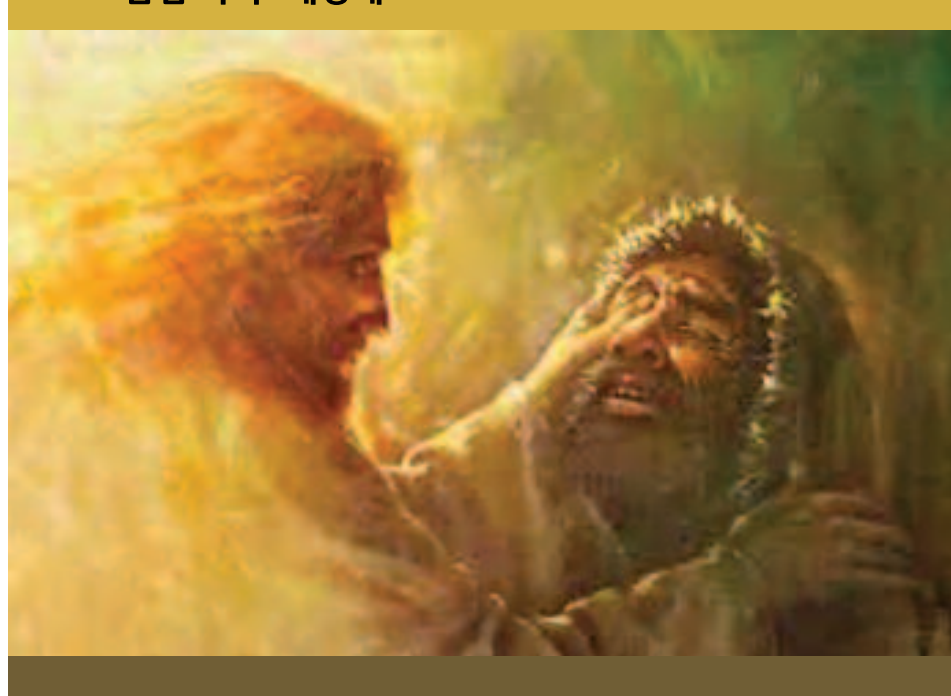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보스톤실로암교회 Siloam Church of Boston

주일예배 : 오후 1시(한글) / 2시 15분(영어)
기도 모임 및 신앙 상담: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보스톤실로암교회 (Siloam Church of Boston)
6 Eddy Street, Waltham, MA 02453
Cell: 857-540-1904
담임 목사: 예성혜



하버드, MIT정부의 재정 압박 속에 신규 채용 중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하버드대학은 10일 연방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재정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일체의 신규 고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하버드의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컬럼비아대에 대한 4억달러 연방정부 보조를 중단하고 국립보건원(NIH)의 지원을 삭감키로 한 뒤 3일만 나왔다.



하버드 졸업식

하버드 앨런 가버 총장은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범위의 재정환경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하버드는 즉각적으로 대학 전반에 걸쳐 교직원 채용을 임시적 중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MIT도 지난주 광범위한 고용동결 정책을 실시했다. MIT 샐리 콘블러스 총장은 연방의 연구자금 감축, 대학의 발전기금에 대한 과세 인상, 그리고 정부 섣다운 등을 대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일 컬럼비아 대학에 대한 각종 계약과 정부 지원을 중단하며 이번 조치가 1단계 조치이며 추가적인 감축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컬럼비아대학 제재는 친 팔레스타인 학생 시위와 관련해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보호실

패와 반 유대주의의 확산 등의 이유에서 내려졌다. 이와 동시에 지난주 말 동안 미 이민단속국(ICE)은 콜롬비아대학 친 팔레스타인 학생시위를 이끌었던 리더를 즉각 체포했다. 미국무부는 체포에 앞서 그의 영주권을 취소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의 캠퍼스내 반유대주의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한 조치도 문제 삼고 있다. 트럼프는 대학 측의 대응이 충분치 않았다고 비난하고 연방정부가 각 대학에 보조금을 지부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전체 기사 읽기〉

트럼프는 한 기자로부터 NIH의 연구 자금 중단에 대한 질문을 받아 “왜 연방정부가 500억달러 규모의 대학 기금을 보유한 하버드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나?” 며 대학 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고용 동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유명 대학들에 대한 압박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대학들의 운신의 폭이 향후 점차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한인회 재산관리위원회 2024년 결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전체 기사 읽기〉

= 뉴잉글랜드 한인회관 재산관리위원회가 2024년 한인회관을 통해 총 \$12,970.81의 수익을 남겨 2025년으로 이월했다고 밝혔다.

재관위 재무인 박진영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2023이월금, 임대 수입, 국민투표소 설치 수입 등

총 \$30,074.99의 소득을 올렸으며 보험, 세무보고, 건물수리, 및 유틸리티 비용으로 총 \$17,104.18이 사용됐다.

다음은 재관위의 2024년 결산 보고다.

bostonkorean@hotmail.com

수입(Income)	
전년도 이월금	: \$8,371.09
임대수입	: \$20,653.90 (2층 임대)
기타수입	: \$1,050.00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
총수입 합계	: \$30,074.99
지출 (Expenses)	
건물보험	: \$3,526.00
세무보고	: \$900.00
건물수리	: \$3,540.00 (누수수리 및 형광등 교체 등)
전기료	: \$776.04
수도	: \$684.83
가스	: \$2,185.45
선수금 반납	: \$2,400.00
IRS, MA Tax	: \$484.56
기타 관리	: \$2,623.18
총지출 합계	: \$17,104.18
2024 이월금 : \$30,074.99 - \$17,104.18 = \$12,970.81	
2024년 12월 31일 은행잔고	
Santander	
CD Account	: \$43,377.50
Checking Account	: \$12,970.81
Total	: \$56,348.31

Pine Dental



Fitchburg, MA에서 여러분의 치아를 책임지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삶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394 water St.
Fitchburg, MA 01420**

**Phone: 978.345.7400
Pinedentalpc@gmail.com**

뉴잉글랜드 지역 학교 및 식품 지원 기관, 농무부 자금 삭감으로 타격

미국 40개 주 학교, 차일드케어시설, 식품지원 프로그램 10억달러 삭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농무부(USDA)가 학교와 차일드케어시설, 푸드뱅크에 지역 농산물 구입을 위해 제공했던 10억 달러 이상의 예산 지원을 전격 삭감해 뉴잉글랜드에 충격을 안겼다.

뉴잉글랜드 6개주를 비롯한 미국 40개 주는 농무부와 학교의 지역 식료품 구입 협력 프로그램에 합의해 지원금을 받았으나 농무부는 지난 8일 삭감조치를 각 주정부에 통보했다고 보스톤글로브가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뉴햄프셔주는 총 27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잃었으며, 이 중 약 6만 8천 달러는 뉴햄프셔 푸드뱅크(NH Food Bank)의 'NH Feeding NH' 프로그램

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금액이다.

뉴햄프셔 푸드뱅크의 낸시 멜릿 개발 담당자는 "매우 심각한 타격"이라며, "식량 지원을 받는 주민들과 지역 농민, 그리고 우리 푸드뱅크 모두에게 큰 피해"라고 밝혔다.

로드아일랜드에서는 '팜 프레시 로드아일랜드(Farm Fresh Rhode Island)' 가이 프로그램의 삭감으로 약 3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약 100개의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총 1천200만 달러의 지원이 삭감됐으며, 모라 힐리 주지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힐리 주지사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방 정부 축소를 주도하고 있는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전체 기사 읽기〉

를 비난하며 "필수 자금을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차단해 어린이, 농부 그리고 스몰비즈니스들에게 그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뉴햄프셔의 경우 이 지원금을 285개 협력 기관에 전달해 185개 농장에서 생산된 52만 2천 파운드(약 236톤)의 식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오는 4월부터 2028년 1월까지 계획된 지원이 완전히 중단된다. 이는 뉴햄프셔 전역에서 약 13만 5,200명의 식량이 부족한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햄프셔 농업부의 레베카 로스 농업개발국장은 "학교와 차일드케어시설이 지역 농산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이번 삭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3년 동안 예정돼 있던 170만 달러의 지원금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연방 농무부 대변인은 "팬데믹 시기에 만들어진 단기 프로그램 대신 균형 재정에 걸맞는 장기적인 식량 프로그램으로 환원할 것"이라며 이번 삭감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 사회와 농민들은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상당한 혼란과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매사추세츠 교육부는 농무부의 예산 삭감은 현재 주정부의 무료급식 및 전국 학교 점심프로그램과 별개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브루클라인 테슬라 차량 훼손 사건 관련 남성 체포

로슬린데일 거주자, 재산 훼손 혐의 6건으로 기소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브루클라인(Brookline, MA)에서 테슬라 차량을 훼손했던 혐의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브루클라인 경찰에 따르면, 39세의 해리슨 랜달은 지난 3월 5일 자신의 거주지인 로슬린데일(Roslindale, MA)에서 체포됐으며, 재산 훼손 혐의 6건으로 기소됐다.

랜달은 테슬라 차량에 일론 머스크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랜달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에 동영상상을 배포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었다.

한 차량 소유자가 직접 그를 대면하며 이에 대해 묻자, 랜달은 "자신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행사" 라고 대답했다. "남의 차에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게 맞느냐" 고 반박하자 그는 "이 차를 탈 수 있으면 다른 차도 탈 수 있다" 고 주장하고 바이크를 타고 떠났다.

법원은 랜달의 보석금을 2,500달러로 책정했다.

hsb@bostonkorea.com

JUNG KWAN JANG

세계 No.1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정

6년 숙성 KOREAN RED GINSENG

-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 당뇨 합병증 예방
-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 기억회복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웨이페어, 340명 감원 및 오스틴 기술 센터 폐쇄 발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에 본사를 둔 온라인 가구 유통업체 웨이페어가 기술팀 축소의 일환으로 약 340개 일자리를 삭감하고 텍사스 기술센터를 폐쇄한다고 8일 발표했다.

얼마 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웨이페어는 2024년 말 기준 약 13,5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즉 금요일 발표된 감원이 전체 인력의 약 2.5%를 차지한다는 의미다. 보스톤글로벌은 감원되는 직원 중 약 170명이 매사추세츠주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페어는 이번 기술 중심의 감원이 "지난 5년간 기술의 현대화를 위한 주요 혁신" 이후 진행되는 것이라고 공개 성명에서 밝혔다. 이러한 혁신으로 "고객과 비즈니스의 진화하는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현대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고성능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라고 감원 이유를 설명했다.

금요일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웨이페어는 이번 감원으로 회사에 약 3,300에서 3,8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절감 효과를 실현하기 시작하여 2026년 초

〈전체 기사 읽기〉

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텍사스 오스틴의 기술개발센터 문을 닫는다. 이 센터는 2021년, 팬데믹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붐으로 웨이페어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을 때 설치되었다.

당시 성명에 따르면, 기술개발센터는 "웨이페어를 가정용품 쇼핑의 최적으로 만드는 혁신적인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회사는 금요일 시애틀, 마운틴뷰(캘리포니아), 토론토, 벵갈루루, 보스턴의 기술센터는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축에도 불구하고, 웨이페어는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계속할 것"이며, 2,500명 이상의 기술자들이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각 고객의 고유한 요구에 맞게 제품군을 정확히 조정함으로써 개인화를 크게 발전시키고 네비게이션을 단순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니라지 샤와 스티브 코닌에 의해 설립된 이 회사는 코로나19



초기의 호황기 이후 최근 몇 년간 일련의 감원과 사업 축소를 겪고 있다. 2022년 8월 870개의 일자리를 삭감했고, 이어 2023년 초에는 더 큰 규모 1,750개의 일자리, 즉 전체 인력의 10%를 감원했다. 같은 해 말, 보스톤글로벌은 웨이페어가 여러 차례의 소규모 감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4년 초에는 또 다른 대규모 감원을 단행해 1,650개의 일자리, 즉 남은 인력의 13%가 축소되었다. 올해 초 사는 웨이페어가 독일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약 730명의 직원이 영향을 받았다.

최근 2024년 재무 보고서를 발표에 따르면 웨이페어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약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총 순매출은 2023년보다 1.3% 감소한 119억 달러를 기록했다. 8월 웨이페어 주가는 5% 이상 상승했다.



하버드대, 재정 불확실성으로 대학원 대기자 전원 입학 거부 결정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대학교 인문과학대학원(GSAS)이 재정 불확실성을 이유로 석사 및 박사과정을 포함한 모든 대학원 과정의 대기자(waitlist)에 오른 지원자들의 입학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예산 삭감을 위협하며 하버드 대학의 재정 안정성에 압력을 가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하버드 필그림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 인문과학대학 호피 E. 후스트라 학장은 6일 오후 전체 교수진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재정적 불확실성에 따른 압박을 고려할 때, 이는 신중하고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를 통해 이미 입학 허가를 받은 기존 학생들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는 이미 정식 입학 허가

〈전체 기사 읽기〉

를 받은 학생과 기존의 재정 보조(Financial aid) 약속은 유지할 예정이지만, 현재 대기 상태에 있는 지원자들에게는 향후 수주 내로 모두 입학 거부 통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해당 이메일은 후스트라 학장과 예마 덴치 인문과학대학 원장과 학부 내 각 분야 학장들의 서명도 함께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생물통계학 박사과정은 연방 예산 지원의 중단으로 인해 당초 예정된 입학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일부 과정은 이미 신입생 규모 축소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기존에 확정된 입학 허가는 철회되지 않았다.

한편 하버드대는 하루 전 전체 교수진과 직원들에 대한 신규 고용 동결을 선언해 여러 학과의 채용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북미최대 안마의사 전문업체 OTA WORLD가 프랜차이즈 및 가맹점주를 모집합니다!

Osaki+ Promo Video ▶

점주는 판매만 하시면 됩니다

※배송부터 워런티까지 본사가 책임집니다

캐롤린 본점 | 1001 W Crosby Rd, Carrollton, TX 75006

“안정적인 소자본 창업
(5만에서 10만)
간편한 매장 운영”

※ 16개 주 34개 스토어 오픈 성업중

- 배송**
- 상담**
- 워런티**

문의 존 리 | John Lee
214-504-6745
john.lee@osakititan.com

문의 에나 리 | Enna Lee
214-613-1630
enna.l@osakititan.com

www.TITANCHAIR.com

OTA World Osaki Titan AmaMedic

www.OSAKIUSA.com

잘나가던 하버드 출신 월가 애널리스트, 글짓기 교사가 된 사연

▶▶ 1면에 이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다. 같은 도시 두 다른 학교를 경험한 것이 그녀를 교육계로 이끈 계기가 됐다.

이후 자신의 지식을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길을 택했다. 이민자 자녀로서 고가의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작용했던 것이다. 그녀는 고교시절부터 영어와 글쓰기를 가르쳤다. 월가에서 일할 때도 플러싱과 할렘을 찾아가 학생들을 가르쳤고, 하버드에 재학 중에는 아시안 이민자들의 시민권 시험 준비를 도왔다.

화려한 스펙의 월가의 애널리스트가 글짓기 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쉐 대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보다 떠날 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데 신념"이며 "내게는 모두가 인문학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민주화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그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레터럴리는 뉴욕의 비영리단체 로빈후드의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인 블루리지랩스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투자를 받았다. 지난해 여름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소재 에피펠라직 벤처의 2백50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본격적인 에듀테크 플랫폼으로 변신했다. 현재 레터럴리는 하버드동문들과 미국내 최대 교사 비영리단체인 티치포아메리카 출신 그리고 보스턴컨설팅그룹

출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월 28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에피펠라직 벤처에서 제인 쉐 대표와 첫 만남을 가졌다. 보스턴코리아는 레터럴리와 협업을 통해 한인 2세들에게 글쓰기 자신감을 키우고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저널리즘 부트캠프'를 논의했고 MOU를 맺었다.

다음은 쉐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본인을 소개해 달라.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5년간 거주하다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다. 영어를 한 마디도 못하는 유치원 시절부터 보낸 뉴욕의 공립 초등학교는 교사당 학생수가 30-40정도였다. 6학년때 맨해튼의 어퍼웨스트사이드의 사립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다. 그는 같은 뉴욕시에 존재하는 학교이지만 이 두학교의 차이가 너무 커다란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하버드에서 역사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M&A 투자은행에서 일하다 헤지펀드 애널리스트로 10년간 일했다. 충분한 돈이 모아져 내가 하고자 했던 교육사업을 시작했다. 글쓰기를 하게 된 것은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월가의 생활은 어땠나?

인생에서 가장 많은 글쓰기를 해본 것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 제안서였다. 이것을 위해 수백, 수천장의 연간리



포트, IPO 유망주보고서, 펀드 투자 연구 등을 읽어야 했다. 그러나 마치 연구원처럼 읽었던 이 경험은 강력한 투자 논거를 만들고 투자 제안서(Investment pitch)의 구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주식과 회사들에 대한 수백 페이지를 투자제안서를 쓸 때 나의 인문학적 배경과 철학, 그리고 투자 은행에서 경험했던 기술적인 측면이 무엇보다 좋은 조합이었다.

-좋은 스펙의 월가 애널리스트가 왜 글짓기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됐나?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영어와 글쓰기, 인문학을 가르치는 봉사 활동을 지속해 왔다. 고등학교 시절 교내 신문 편집자였고 지역 사회 뉴스레터를 창간하기도 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하버드에 다닐 때는 보스턴 지역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시민권 시험 준비를 도왔다. 윌스트리트에서 일할 때도 할렘으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민자의 자녀라는 개인적인 배

경 덕분에 나의 소명을 일찍부터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세상이 한정된 자원을 가진 곳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보다 떠날 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내게는 모두가 인문학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민주화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그 능력이었다.

-레터럴리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쉐 : 레터럴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글을 쓰는 지 배워서 자신감을 얻고 출판물 통해서 소통하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통합된 플랫폼이란 점이 다르다. 레터럴리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글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많은 글쓰기 플랫폼들이 있지만 레터럴리의 특징은 초고 작성에서부터 최종 본의 출판까지 진행한다는 점이다. 즉 글쓰기를 생각을 조합해서 잘 다듬어진 소통의 형태로 보고 접근하기에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글을 다듬는 과정을 가르친다. 쓰고 수정하고 하는 편집의 과

정을 거쳐 언론사에서 하는 것처럼 최종본을 출판하게 된다. 자신의 글을 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출판해서 수많은 다른 대중들과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레터럴리는 글쓰기를 가르쳐 글의 게재 후 소통까지를 진행한다는 것이 강력한 특징이다.

-보통 다른 기관과 협업하는 독특한 형태로 운영되는가?

레터럴리는 독자적인 브랜드 형성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보스턴코리아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기관들을 보조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레터럴리는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의 준정부기관의 청소년 과학잡지인 더블 헬릭스와 협업해 청소년 STEM부트캠프를 마쳤다. 또한 브루클린테크놀로지하이의 PTA와 Brooklyn Tech PTA program란 시니어 대상 에세이 작성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에듀테크 회사들이 최근에는 AI를 적극활용하고 있는데 레터럴리의 접근 방법은 어 ▶▶ 7면으로 계속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6면에 이어서
뎐 것인가?

레터럴리는 또한 2020년 글짓기 학교인 레터럴리 아카데미에서 출발해 추후 교육 테크놀로지 회사로 전향했다. 다른 교육테크(EdTech) 플랫폼이 인공지능(AI)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전문 글짓기 교사가 직접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다. AI는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특히 캠프에서는 교사가 배정되어 학생들과 만나는 일부러 시작해 캠프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학생의 글짓기 지도를 맡는다. 레터럴리의 교사들은 75%가 아이비리그 출신이며 전원이 미국내 탑 20위 대학내 출신의 교사다. 또한 이들 교사들에 대해 강력한 훈련코스를 거치게 만들어 글짓기 교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AI는 우리 교사들이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만 사용되고 있다. 글짓기 교사들의 수정 과정은 학생들과의 끈끈한 연대를 형성하고 글쓰기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하게 만든다. 또한 정말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글짓기 캠프후 학생들이 얼마나 발전하는가.

캠프에서는 3주간 과학, 테크, 스포츠, 예술, 창작 글쓰기 등 다양한 주제의 사건들을 매일 읽고 쓴다. 더구나 매번 글쓰기 마다 수정을 거친 후 두차례 써야 하며 편집 선생님이 지적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그런 후 출판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이 같은 캠프는 정말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효과도 확실하다.

레터럴리가 지난 2년간 실시한 플래시-킨케이드(The Flesch-Kincaid)라고 불리는 방법의 연구에 따

르면 매일 꾸준히 글을 쓰는 경우 3주를 마치면 약 절반 학점 정도의 글쓰기 성적이 올라가는 것으로 발견됐다. 부가적으로 ELA 성적도 크게 향상된다.

물론 이 같은 결과를 위해서는 매일 읽기와 쓰기를 해야 한다. 즉 매일 12시 마감시간 까지 글을 제출해야 하는 자기관리(Discipline)가 매우 중요하다. 이 시간이 지나면 글짓기 시간이 끝나서 더 이상 글 작성이 불가능하다. 수정을 거쳐 출판을 하게 되면 자신의 글이 게재됐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글을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나?

우리는 결코 모든 글짓기 과제를 학생들이 완성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이 100%를 끝내지 못한다. 이 부분을 학부모들은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75%에서 90%만큼 글쓰기를 하는 편이다. 90%를 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우리는 매일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글쓰기 제출을 독려한다. 학생들은 글짓기 교사들과 매주 면담을 할 수 있으며 이것 또한 학생들은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0명중 8명은 면담을 선택하며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이 글을 제출하도록 설득하게 된다.

학생들이 글짓기를 완료하지 못하면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이 내용이 통보된다. 적절하게 아이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글이 출판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나

자신의 글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

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된다. 매년 학생들은 약 1만5천여개의 글을 레터럴리에 게재한다. 이중 상당수의 학생들은 출판된 글을 글짓기 대회에 제출한다. 많은 학생들은 스칼라스틱(Scholastic)에서 골드나 실버키를 수상했으며, 몇명은 아주 어려운 존 로크(John Locke)의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됐다. 또한 최근 한 학생은 뉴욕타임스 tiny memoirs competition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저널리즘 서버 캠프를 통해서 향후 각종 글짓기 경연대회에 제출할 수 있는 자신의 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된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2020년 처음 학교를 시작했을 때였다. 케빈은 대부분의 5학년 학생처럼 글짓기를 싫어했다. 클래스에서 늘 아무 것도 쓰지 않고 백지를 제출하곤 했고 심지어 울기까지 했다. 그는 마인크레프트를 하고 싶어했으며, 심지어 글쓰기만 아니면 뭐든 하겠다고 했다.

그는 차츰 자신의 비디오 게임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수정을 거친 이후 이를 출판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얼마나 학교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었다. 차츰30단어가 50단어로 늘었고 마침내 200단어를 넘겼다. 그는 학교에 오피니언을 게재했으며 이를 친구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저널에는 이처럼 이를 공유하는 기능이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친구들이 그의 글을 좋아하자 그는 이후 엄마에게 부탁해 3번이나 저널리즘 캠프를 들었다.

editor@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전기 요금 4월 \$50크레딧 받는다

▶▶1면에 이어서

은 주정부가 전력회사로부터 일정 비율의 청정에너지 사용을 지키지 못할 때 받는 대체 준수금(ACP, Alternative Compliance Payment)으로 충당된다.

힐리 주지사는 이번 크레딧이 단기적인 지원책일 뿐이며,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계획이 완전히 실현되면, 향후 5년 동안 소비자들의 부담을 수십억 달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힐리 주정부는 작년 기후 법안(climate bill)에서 규정한 중위소득 가구를 위한 할인 제도를 마련 중이다. 하지만 이 할인 비용은 모든 고객이 부담해야 하며, 최종 적용 여부는 주 공공시설위원회(DP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힐리 주지사는 “할인 대상과 절감 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공공유틸리티사업부(DPU)는 매스세이브(Mass Save) 에너지효율 프로그램과 가스관 교체 사업을 위해 지난해 6개월간 겨울철 난방비를 10~30% 인상하는 안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올겨울 예상보다 더 추운 1월이 지속되면서 난방비 요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1월 주의회는 항의서한 주지사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내셔널그리드

와 에버소스는 3월과 4월 요금을 1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금액은 향후 6개월간 가스사용량이 적은 청구서에 분산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DPU는 매스세이브 프로그램 예산을 3년간 5억 달러 삭감했다. 이 비용은 가스회사들이 전력 사용 고객들에게 추가부과금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이에 따라 향후 내셔널그리드와 에버소스 등 유틸리티 회사들은 인하분을 향후 분산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주정부의 이야기다.

한편, 힐리 행정부는 소위 ‘경쟁 전력 공급업체(competitive electric suppliers)’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전기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미끼 상품(bait-and-switch schemes) 논란이 지속돼왔다.

힐리 행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 공급업체의 확장 제한을 도입하면 매년 소비자들에게 수천만 달러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작년,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경쟁 공급업체의 소비자 직접 판매 금지 법안을 검토했으나, 기후 법안에서 해당 조항이 빠지면서 법안이 무산됐다. 하지만 힐리 주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향후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겨울 끝자락에 즐길 수 있는 보스톤의 무료 클래스와 액티비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겨울이 끝나가는 이 시점, 보스톤에서 봄을 맞이하기 전에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클래스와 액티비티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평소에 도전해보고 싶었거나 궁금했던 커피 로스팅과 테이스팅 클래스와 같이 미각을 자극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보를 배울 수 있다. 더불어,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을 풀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의 기회도 챙길 수 있는 살사 클래스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관심있는 분야를 접해보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경험을 쌓고 배우며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된다. 보스톤의 차가운 바람을 뒤로하고 봄이 오기 전 특별한 경험에 도전해 보자.

조지 하웰 커피 전문점 커피 클래스

우수한 품질의 원두를 제공하기 위해 녹색 원두를 진공포장한 기술로 보스톤에서 신선한 커피를 소량 배치로 매일 주문에 맞춰 로스팅하여 제공하는 커피 전문점인 조지 하웰 카페에서 무료 커피 클래스를 제공한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1시에 진행되며 다양한 주제의 강연들이 준비되어 있다.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로스트 커피 빈을 가져와 커피 브루잉하는 법을 배우며 가볍게 네트워킹하는 coffee and community 클래스와 다양한 커피 품종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커피 테이스팅 클래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다운타운 크로싱에 위치한 조지 하웰 카페와 보스톤 퍼블릭 마켓 두 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위치에 따라 주제가 다른 다양한 수업이 진행된다.

장소: 505 Washington Street Boston, MA 02111 (George Howell Coffee)

<전체 기사 읽기>

100 Hanover Street, Boston, MA (보스톤 퍼블릭 마켓)

신청 사이트:

<https://www.eventbrite.com/e/coffee-and-community-tickets-1256669264599?aff=ebdssbdestsearch>

스케줄 정보: <https://georgehowellcoffee.com/pages/classes>

델스 커피 테이스팅 클래스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찾는 여정에서 시작해, 소규모 로스팅 사업까지 시작하게 된 카페다. 그동안의 열정을 담아 직접 로스팅한 신선한 원두들을 판매하고 있다.

매주 특정 산지의 커피를 선정해 다양한 로스팅 기법과 추출 방식, 커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원두별 역사를 배울 수 있다. 또한 커피를 함께 맛보며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장소: 100 Felton Street Suite 105 Waltham, MA 02453 (Del's Coffee Roasters)

신청 사이트:

<https://www.eventbrite.com/e/specialty-coffee-tasting-on-tuesday-10amtickets-950058429337?aff=ebdssbdestsearch>

웹사이트: <https://www.delscoffee.com/>
The Sea Hag 레스토랑 & 바에서의 코미디 나이트

케임브리지의 명소인 Grendel's Den의 자매 레스토랑인 The Sea Hag Restaurant & Bar에서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새로운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선보인다. 현재 뉴잉글랜드에서 활동 중인 가장 재미있는 전문 코미디언과 떠오르는 신예 코미디언들을 만날 수 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색다른 저녁을 보내 보자.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해 있으며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에 진행된다.



장소: 49 Mount Auburn Street Cambridge, MA 02138 (The Sea Hag Restaurant & Bar)

신청 사이트: <https://www.eventbrite.com/e/comedy-night-at-the-sea-hag-restaurant-bar-free-tickets-1115691626689?aff=ebdssbdestsearch>

어번 그레이트 보스톤 와인 테이스팅

매주 목요일 5시-8시, 토요일 2시-5시 와인에 대해 배우는 것이 즐거워야 한다는 어번 그레이트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매주 목요일 5시-8시, 토요일 2시-5시에 그날의 스태프 추천 와인 무료 테이스팅을 할 수 있다. 테이스팅한 모든 추천 와인은 10% 디스카운트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달 3월 25일 화요일에는 도자기 페인팅 팝업 행사도 진행해 와인을 마시면서 페인팅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장소: 303 Columbus Avenue Boston, MA 02116 (The Urban Grape)

신청 사이트:

<https://www.eventbrite.com/e/free-saturday-wine-tasting-at-the-urban-grape-boston-tickets-1255624971089?aff=ebdssbdestsearch>

장소: 1234 Soldiers Field Road Boston, MA 02135 (Craft Food Halls - Allston)

신청 사이트:

<https://www.eventbrite.com/e/free-salsa-lessons-craft-food-halls-allston-tickets-1255624971089?aff=ebdssbdestsearch>

장소: 1234 Soldiers Field Road Boston, MA 02135 (Craft Food Halls - Allston)

신청 사이트: https://bos.theurbangrape.shop/pages/tastings?srsltid=AfmBOopLpU86jTyjUD-sCkLmjtwy4PjARS7e6w1qbQ_9Krn9peCIWa5KTU

웹사이트:

https://bos.theurbangrape.shop/pages/tastings?srsltid=AfmBOopLpU86jTyjUD-sCkLmjtwy4PjARS7e6w1qbQ_9Krn9peCIWa5KTU

크라프트 푸드 홀 초보 살사 레슨

메타 무브먼트와 협력하여 무료로 살사 레슨을 제공한다. 살사를 배우는 것에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즐겁게 배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과 네트워킹 장을 제공한다. 30개 이상의 탭과 셀프 서비스 맥주 월을 갖춘 크라프트 푸드 홀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살사를 배우며 스트레스를 날려보자. 3월 21일 금요일 6시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장소: 1234 Soldiers Field Road Boston, MA 02135 (Craft Food Halls - Allston)

신청 사이트: <https://www.eventbrite.com/e/free-salsa-lessons-craft-food-halls-allston-tickets-1255624971089?aff=ebdssbdestsearch>

웹사이트:

<https://www.craftfoodhalls.com/allston>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물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1)

비전 교회

Grace Vision United Methodist Church

주일 예배 : 오전 10시 30분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담임 목사: 구정훈
마동부/youth 전도사: 최민영
청년부 전도사: 남윤지

545 Moody St. Waltham, MA 02453
Tel: 910.670.4858 www.gracevisionumc.org

2025 정기 교사 연수회·사은회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자랑스러운 세계 리더”를 키우는 한국학교의 역할과 미래

일시 : 2025년 3월 29일 토요일 오후 2:00-8:00

장소 : 보스턴 장로교회 (2 Main St. Hopkinton. MA)

1부 교사 연수회

- 전체강연 1 : 린다 챔피언(Linda Chanpion 변호사/NE시민협회 회장)
- 전체강연 2 : 허봉량 선교사 (Wycliffe 대학교 명예 신학박사)
- 우수교사·장기근속 교사·개교 20주년 이상 학교 시상식
- 1부 교사 연수회가 진행되는동안 동반자녀(3세 이상부터) 놀이방 운영

2부 교사 사은회

- 저녁식사
- 우수배우자상 시상식
- 추억의 전통 놀이
- 경품 추첨



참가신청 : QR코드(구글폼 작성)

참가비 : \$15/1인 & 교사 가족동반(무료)

신청 마감 : 3월 16일까지 (16일 이후 신청자 및 비회원교는 \$20/1인)

문의 : naks.ne.us@gmail.com

주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후원:  주보스턴총영사관

 재외동포청

 NAKS-NE 이사회·교장단

 보스톤코리아



ICE 컬럼비아대 출신 영주권자 활동가 체포, 추방절차

반유대주의 금지 행정명령 따른 조치 vs. 정치적 탄압 논란
국토부, 칼릴 하마스 연계된 활동 주도한 혐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이민단속국(ICE)이 지난 9일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반이스라엘 시위를 주도했던 마흐무드 칼릴(Mahmoud Khalil)을 체포했다. 영주권자인 칼릴은 컬럼비아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지난해 봄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협상 대표로 활동한 인물이다. 칼릴의 변호사 에이미 그리어(Amy Greer)는 "ICE 요원들이 칼릴이 거주하고 있는 컬럼비아 대학 아파트에 들이닥쳐 체포했다"며, 체포 당시 칼릴의 임신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도 구금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칼릴의 체포 근거로 "반유대주의를 금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제시했다.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칼릴이 '하마스

(Hamas)와 연계된 활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의 박탈은 테러 단체 지원 혐의 등 다양한 범위의 범죄활동을 했을 때에 가능하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칼릴이 어떠한 범죄 혐의도 받지 않았고, 그가 시위에서 한 발언이 법적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칼릴은 당초 뉴저지의 이민자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가족에 통보치 않고 루이지애나주의 이민자 구금 시설로 이송됐다. 변호인 측은 "구체적인 구금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대학 캠퍼스에서의 시위자들은 구속하거나 출신 국으로 영구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 학생들에 대해 영구 퇴

〈전체 기사 읽기〉
학되거나, 범죄의 정도에 따라 체포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포스트에서 불법시위하는 모든 대학을 제재할 것이라고 다른 대학도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칼릴의 체포를 두고 미국 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의 라시다 트라이브(Rashida Tlaib) 하원의원은 "칼릴을 석방하라"며 "정치적 반대 의견을 범죄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과 친이스라엘 단체들은 "캠퍼스에서 벌어진 반유대주의적 시위를 방지한 결과"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 칼릴의 첫 범인 심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hsb@bostonkorea.com



백악관 시 및 암호화폐 파르 데이비드 삭스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 서명... 가격은 되려 하락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당장 오르기보다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백악관 인공지능(AI) 및 암호화폐 파르인 데이비드 삭스는 7일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형사 또는 민사 절차에 따라 몰수된 비트코인만 비축되며, 납세자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정표라고 소개했다. 삭스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비축이 재무부 산하에 서정부의 디지털 자산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비트코인을 추가로 획득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체 기사 읽기〉
행정명령 서명후 급등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발표 이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격은 급락했다. 미국 정부가 몰수한 디지털 자산만 제한적으로 비축하겠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업계 관계자는 "가장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당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비트코인 비축량을 세배로 늘리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 세금 감면과 관련된 내용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이후 비트코인은 한동안 하락을 거듭하다 일정 기간 후 급등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하락이 지난 ETF 승인 이후처럼 일시적인 하락 및 횡보 기간으로 불여지도 남아 있다.
hsb@bostonkorea.com

성인투인디블뤼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검 철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3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and 2024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년 보스턴 매거진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로 선정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1조 삭감' 내건 트럼프 · 머스크, '철의 여인' 대처 길 가나

블룸버그 "1조 삭감은 1980년대 대처의 긴축에 필적"
"긴축 속도 대처보다 빨라...긴축 후 영국은 경기침체"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연방정부 지출 삭감은 1980년대 '철의 여인'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긴축에 필적할 것이다"

블룸버그는 12일(현지시간) "만일 머스크의 뜻대로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처 전 총리에 비슷한 경제 개편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고강도 긴축에 힘든 경제 개편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머스크는 내년에 연방 지출을 1조 달러 감축한다는 목표다.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 지출은 6조7천520억달러였다.

많은 경제 및 예산 전문가들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목표다.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와 국민연금제도인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같은 프로그램을 손보지 않고선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블룸버그는 "1조 달러 삭감은 트럼프 행정부 야심의 크기, 사실상 경제 충격 요법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지출 삭감 속도가 재정적자를 끝내고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지출을 대폭 감축했던 1980년대의 대처 전 총리를 능가한다는 것이다. 대처 전 총리의 긴축 정책 이후 영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 대처 전 총리는 이를 후회하지 않았다.

GDP의 23.4%(2024년 기준)에 달하는 미국 연방 지출에서 1조 달러 감축은 GDP의 약 3.5%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영국 대처 전 총리의 긴축은 연간 GDP의 1% 수준이었다.

블룸버그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대처 정부와 비슷한 이념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인프라에서부터 혁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정부 개입을 대폭 줄임으로써 민간 기업 활성화로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연설에서 "우리 목표는 경제를 재민영화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일자리 창출의 95%를 정부, 교육, 헬스케어 고용이 차지했다면서 "이는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 지출에 중독됐다"며 "해독 기간(detox period)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긴축은 연방정부 일자리 감축에서 이미 시작됐다. 행정부 출범 7주일 만에 10만개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일자리 50만개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머스크는 또한 사회보장연금 같은 자격 프로그램들을 겨냥하고 있다.

그는 "엄청난 규모의 사기가 있다"며 "연방 지출의 10% 정도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긴축은 경제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올해 연방 지출이 1조 달러 감소하면 매 분기 GDP가 감소하고 경제가 예상보다 3.3%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에 빠지고, 실업률이 연말까지 5.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추정을 소개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 책임자 마사 짐벨은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연방정부의 커다란 부분을 떼어내면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더라도 여전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의 지출 감축 계획은 집권 공화당 의원들이 10년간 세수를 2조 달러 삭감하는 세법안을 제안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세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여전히 계속 늘어날다.

자산운용사 포인트72 창업자 스티븐 코헨은 지난달 한 콘퍼런스에서 "정부효율부 이슈가 어디에 있든 그것은 긴축"이라며 긴축은 "경제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지지자들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대처 전 총리는 긴축을 펼친 후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공화당도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조지워싱턴대 공공정책 전문가 앤드루 리머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31개 주 가운데 30개 주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받은 세입이 연방정부에 지급한 세금보다 더 많았다면서 "트럼프에 투표한 주(州)들의 예산이 카멀라 해리스에 투표한 주들보다 연방 원조 예산 삭감에 더 취약하다"고 말했다.

jungwoo@yna.co.kr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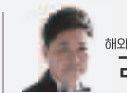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머스크 향한 반감 확산...테슬라 매장에 화염병·소총까지

정식각료 아닌 머스크 "정부지출 안 줄이면 파산...많은 살해위협 받아"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운 후 새 행정부에서 실제로 군림 중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현실 공간에서의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후 머스크가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테슬라 관련 시설에서 최소 12건의 폭력 행위가 있었다.

테슬라에 대한 공격은 테슬라 전 기차와 매장, 충전소 등에서 발생했다.

루시 그레이스 넬슨이라는 여성은 1월 29일부터 13일간 콜로라도주 러브랜드에 위치한 테슬라 매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기물을 고의로 훼손했다.

그는 술병으로 만든 화염병 4개를 들고 와서는 매장 주변에 주차된 전 기차들을 향해 던졌고, 차가 불타는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스프레이 페인트로 매장 입구 간판에는 '나치', 문에는 '엿먹어라 머스크'라는 낙서를 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애덤 매튜 랜스키라

는 남성이 오리건주 세일럼에 있는 테슬라 매장을 향해 반자동 소총을 난사했다. 이 남성은 이보다 몇 주 전에 도이 매장에 화염병을 던졌다.

이달 들어서는 매사추세츠주 리틀턴 쇼핑센터 내 테슬라 충전기 7대가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불탔고, 메릴랜드주에서는 테슬라 건물 벽면에서 '머스크 반대'라는 페인트 낙서가 발견됐다.

이런 사건들은 머스크가 트럼프 2기 정부 효율부(DOGE) 수장으로 백악관에 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머스크에 대한 강한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최소 2억8천800만달러(약 4천175억원)를 후원한 머스크는 정부로 들어가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목표 하에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를 주도하고 있다.

또 정치적으로는 나치 경례를 연상시키는 손동작을 하거나 유럽의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등 도발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와 대체로 거리를 두며 테슬라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고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서 로켓 발



미국 캘리포니아 테슬라 매장 앞에서 '머스크 반대' 시위 벌이는 시민들

사에 몰두하던 이전과는 판판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는 '테슬라 타도'(#teslatakedown) 등의 해시태그 문구를 단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태다.

테슬라를 극우 정치의 상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 테슬라를 '친환경'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도 약해졌다.

경찰은 테슬라를 겨냥한 폭력 사건으로 누군가가 심각하게 다치는 일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잡음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의 친트럼프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웨드부시 시큐리티의 기술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는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가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결정 요인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밀착 끝에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관련해 간소화된 연방 규제를 얻어낼 수 있다면 테슬라로서는 최고의 패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여론 악화에 직면한 머스크는 야당인 민주당의 정치광고에서는 새로운 스타로 급부상했다.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초고령 한국 앞에 놓인 '치매 100만명 시대'...커지는 돌봄 부담

환자 1인당 연 1천700만~3천100만원 비용...돌봄비)의료비
치매환자 과반이 '1인가구'...사각지대 돌봄 시스템 절실
정부,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임지우 이
도흔 기자 =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눈앞으로 다가온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는 사회 전체에 '
돌봄 부담'이라는 커다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
로 치매 환자는 계속 늘고 이들을 돌
볼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돌봄 부담의 수렁에 빠
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조속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치매 환자 절반 이상 '1인 가구'
'...돌봄비 부담이 의료비보다 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이다. 내
년 100만, 2044년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지난해 1천
만 명을 넘어서 빠르게 증가함에 따
라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
자의 동반 증가 역시 피할 수 없는 결
과다.

치매의 고통은 환자 본인이나 가
족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시설·병원
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머무는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52.6%)이 1인가구
였고 27.1%가 부부 가구, 19.8%가 자
녀 동거 가구였다.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혼자 살든, 같

이 살든 가족이나 다른 돌봄 인력이
도움이 절실하다. 실제로 치매 환자
와 같이 살지 않는 가족도 주당 평균
18시간을 이들의 돌봄에 썼다.

지역사회 치매 환자 가족의 45.8%
는 돌봄 부담을 느끼고, 40%가량은
치매 환자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경제적인 변화를 포함한 삶의 부정
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환자가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간
경우에도 입소 전 평균 27.3%를 가족
이 돌봤는데, 결국 '24시간 돌봄의 어
려움'(27.2%)이나 '증상 악화로 인한
가족 불편'(25.0%) 탓에 입소를 택했
다.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었다.

지역사회 환자 가족의 38.3%, 시설
·병원에 있는 환자 가족의 41.3%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이번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에 머무는 경
우 1천733만9천원, 시설·병원에 있
는 경우 3천138만2천원이었다.

지역사회에 머무는 경우 돌봄비
비중(67.0%)이 보건의료비(25.3%)
보다 월등히 많아 전체 비용의 3분의
2에 달했다. 시설·병원 환자도 전체
비용의 절반 가까이(48.9%)가 돌봄
비였다.

이 때문에 치매 환자 가족은 우선
필요한 정책으로 경제적 비용 경감
을 꼽았다.



가족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치매의 경제적 부담은 상당하다. 지
난해 노인성 질병 급여비는 2019년
대비 28% 늘어난 6조원 안팎으로 추
정된다.

◇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과
도한 공포 없게 치매 이해도 높여야"
빠르게 늘어나는 치매 환자로 '간
병 지옥', '돌봄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적인 부
담을 줄이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대
응이 필요하다.

우선 치매 검진과 예방, 사례관리,
환자가족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
는 지역 치매관리 기관인 전국 256곳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는 "치매안심센터가 조기 선별에 힘
을 쏟고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 이후
사례 관리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해

지속적인 서비스가 어렵다"며 "센터
가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
로 연결되도록 전달체계 혁신도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실태조
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치매 조기 발
견과 초기 집중관리를 위해 치매안
심센터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
로 찾아가는 치매 검사·예방 교육
서비스를 계속 추진하고 독거, 부부
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를 강화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선
장기요양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
획이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등에 치매전

담실을 확대하고 보호자 긴급 상황
으로 인한 돌봄 공백 지원을 위한 장
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현재 연 22회(
종일 기준)에서 24회로 확대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가족이 치매에 대한 과도한 공포
나 우려로 불필요한 부담까지 지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는 제언도 나온다.

석재은 교수는 "일반인의 치매 리
터러시(문해력)를 조사해보니 잘못
알고 있거나 과도하게 공포심을 갖
는 경우가 상당했다. 관련 정책도 잘
몰라서 막막하다 보니 초기부터 요
양병원 등을 택하기도 한다"며 "문해
력을 높이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강화하면 고비용 구조로 가
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mihye@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MAR. 14th - MAR. 20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SUSHI DONUTS

Made with H Mart's fresh sushi-grade salmon, tuna, and authentic Japanese seasonings, they're fancy yet simple to prepare and super satisfying. H Mart의 신선한 재료로 만든 스시 도넛! 간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맛을 즐겨보세요.



Premium Fuji Apple 프리미엄 후지사과 LB \$1.49	Garlic 마늘 5 PCS/PKG \$1.99	Kabocha 단호박 LB \$0.99	Korean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Israel Fuyu Sharon 이스라엘 단감 BOX \$12.99
Green Seedless Grape 씨없는 청포도 LB \$2.99	Israel Orri Mandarin 이스라엘 오리 만다린 LB \$2.99	Ginger 생강 LB \$2.99	Navel Orange 네이블 오렌지 3\$2 FOR EA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3.9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10.99	Fresh Bone-in Beef Shank 생 뼈있는 소 아롱사태 LB \$7.99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7.99	Pork Jowl Meat 돼지 항정살 LB \$7.99
Fresh Whole Chicken 생 통닭 LB \$1.99	Marinated Tenderized Pork CT Butt Steak 양념 돼지 발집 목살 스테이크 LB \$6.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esh Kingfish Steak 킹피쉬 스테이크 LB \$6.99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7.99
Frozen Norwegian Mackerel 노르웨이산 곶등어 600 UP/LB \$1.99	Head-on Shrimp 머리새우 20-30'S LB \$4.99
Frozen Chilean Sea Bass Steak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LB \$19.99	Frozen Squid Tube 오징어 튜브 US'S LB \$3.99

SMART CARD MEMBER ONLY

RAW NATURE Cooked Brown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현미밥 \$12.99 7.4 OZ X 12 BOWLS/PKG	JONGGA Kimchi Ramen 종가집 김치라면 \$9.99 4.93 OZ X 6 BOWLS/BOX
KIDARI Shrimp Tempura Udon 키다리 휴게소 일품 바삭 왕새우 튀김 우동 \$6.99 1.39 LB	DR. CHUNG'S FOOD Vegemil A Soy Milk 정식품 담백한 베지밀 에이 \$11.99 6.42 FL OZ X 16 EA/PKG

OTTOGI Jin Ramen 오투기 진라면 SPICY/MILD 4.23 OZ X 18 EA/BOX \$15.99	SUNGGYUNG Seasoned Roasted Sliced Seaweed 성경 도시락김 ORIGINAL/GREEN TEA /AVOCADO OIL 2.26 OZ (16 EA/PKG) \$5.99	CHUNG JUNGONE O'Food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100% 현미 태양초 찰 고추장 1.1 LB \$4.99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10.99	PULMUONE Plant-based Spicy Pork Fried Rice 풀무원 식물성 제육볶음밥 14.8 OZ \$5.99
OTTOGI Natto 제주콩으로 만든 생나트도 5.92 OZ \$4.99	AYAM YOOK Luncheon Meat 아얌육 런천미트 12 OZ \$2.99	HAIO Canned Whelk 해오름 골뱅이 캔 14.1 OZ \$6.99	ARIZONA FARM Honey Bear 아리조나 팜 허니 베어 12 OZ \$2.99	DANYA Mochi Ice Cream 단야 모찌모찌 종합 과일맛 아이스크림 2 FL OZ X 6 EA/PKG \$4.99
WOONGJIN Morning Rice Drink 웅진 아침햇살 50.72 FL OZ \$3.99	WOONGJIN Green Plum Drink 웅진 초록 매실 50.72 FL OZ \$3.99	EUNYUL Sheet Mask 은을 시트 마스크 ALL VARIETIES EA \$0.79 (was \$0.99)	KOTO Rice Cooker 코토 전기밥솥 - \$41.99 \$34.99 10 CUPS EA	Yellow Aluminum Pot 한국산 양은 황냄비 14 CM/16 CM/18 CM/20 CM - \$7.49-12.49 \$4.99-8.99 EA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 김치!**
JONGGA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Made with 100% Korean ingredients, JONGGA Kimchi offers taste you can trust!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ek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김지민 978.494.2043 jimkim@bostonpremierrealty.com	 노미연 617.447.0501 miyeon@bostonpremierrealty.com	 박주 617.780.7639 ju@bostonpremierrealty.com	 박지희 978.866.3248 jhpark@bostonpremierrealty.com	 박인주 401.538.3397 ivpark@bostonpremierrealty.com
 박소연 617.338.0787 soyeon@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박 617.455.7710 gracepark@bostonpremierrealty.com	 박수진 617.528.6973 su@bostonpremierrealty.com	 박소연 213.503.0387 soyeon@bostonpremierrealty.com	 박지희 413.507.1400 jhpark@bostonpremierrealty.com	 박소연 617.913.3388 soyeon@bostonpremierrealty.com
 최진진 617.877.0387 jin@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36.3412 soony@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59.1214 han@bostonpremierrealty.com	 박지희 617.915.1162 jh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국 617.543.0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박지희 404.641.9102 jhpark@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94.58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482 nancy@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531.0314 shirley@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e 617.936.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7.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ong 248.449.0117 jio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rra 978.873.0076 msorr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8.2623 jun@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정혜민 박 201.446.8995 min@bostonpremierrealty.com	 재미크 김 781.506.0409 mik@bostonpremierrealty.com	 이신현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Mini Belanger 413.257.1586 mini@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다자녀 부자일수록 상속세 확 준다...15억 집 물려주면 2억 → 0

과세대상 상속재산 쪼개지며 누진효과 ↓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안의 핵심은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각각의 공제·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를 매기면 과세 대상 재산이 작게 쪼개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기존 방식보다 세금이 큰 폭으로 줄게 된다.

상속세 세율은 부과 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속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로 구성된다. 과표 기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가령 3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법정상속분 12억9천만원)와 두 성인 자녀에게 각각 10억원씩 상속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3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4억4천만원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배우자를 제외한 두 자녀만 각 9천만원씩, 1억8천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가 약 60% 줄어드는 셈이다. 상속 재산이 상속인 수만큼 쪼개지면서 최고 세율이 낮아져 기존의 누진 효과가 대폭 반감됐기 때문이다.

상속인별로 부담한 유산취득세를 보면, 배우자는 상속 재산과 같은 규

모의 공제(10억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0원이다.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기본공제 5억원씩 받기 때문에 남은 5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 경우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20%(과세표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다.

두 자녀가 각각 5억원의 과세 표준에 대해 20%의 최고 세율을 토대로 계산한 세금(각 9천만원)을 내면 되는 것이다.

반면 기존 방식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두배 높다.

과세표준 산정 대상이 상속인이 각각 받은 재산(10억원)이 아닌 상속 전 전체 재산(30억원)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배우자 공제 10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15억원으로 최고세율은 40%(과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점도 상속세를 크게 줄이는 요인이다.

가령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고인)이 15억원의 상속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대로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과표 10억원에 대해 2억4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대로 하면 자녀 1명당 각각 5억원의 공제가 적



용돼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된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수준의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앞으로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3억8천289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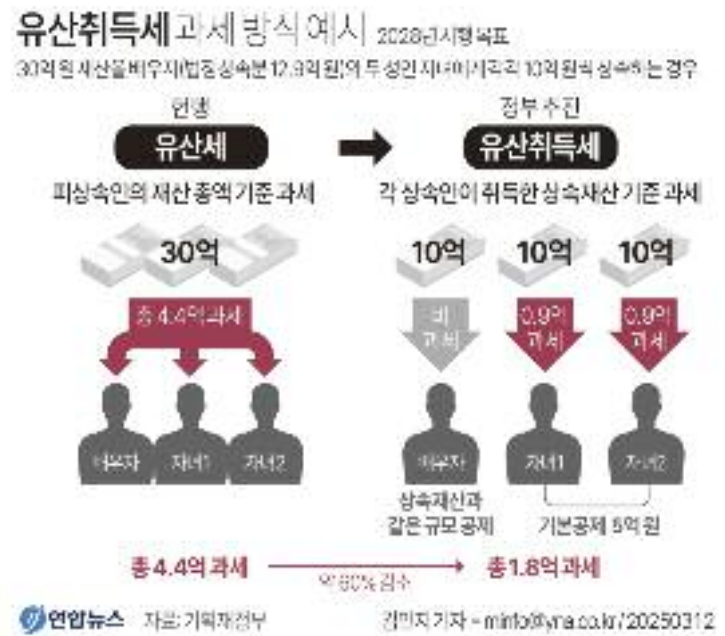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상속인이 많으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분할돼 최고 세율도 낮아진다.

특히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누진세율을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다자녀 부유층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각자 받은 재산별로 매긴다...정부, 75년만의 상속세 대수술 추진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안 공개...연내 입법 전제, 2028년 시행
인적공제 전면 손질...일괄공제 없애고 자녀공제·배우자공제 대폭 확대
現 10억원 상속세 면세점, 사실상 최소 20억으로 높아질 듯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상속세 법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이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대격변으로,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액을 산출해야 하다 보니 과세 행정도 그만큼 복잡해진다.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

각자가 받은 재산별로 매긴다...정부, 75년만의 상속세 대수술 추진 - 2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8개월만이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능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괄 적용된다. 즉, 재산 10억원까지 상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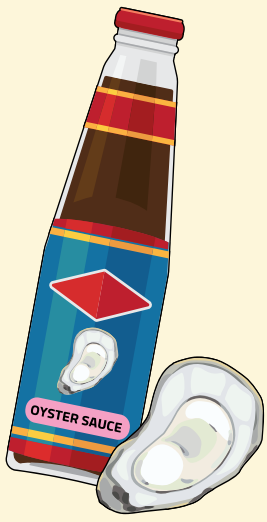
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이다.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MAR. 13th - MAR. 20th, 2025



BURLINGTON & QUINCY STORES ONLY

Asian Cooking Essentials Kit
이금기 아시안 쿡킹 에센셜 키트

~~\$12.99~~
\$9.99



다양한 요리법 위한 완벽한 선택!

PREMIUM OYSTER SAUCE (18 OZ) + PREMIUM SOY SAUCE (16.9 FL OZ) + DARK SOY SAUCE (16.9 FL OZ)/PKG



Dong Gu Bread Plate Mug Set
동구 빵 접시 머그컵 세트

~~\$19.99~~
\$11.99



Home Cafe Vibe!

AVOCADO

PRETZEL

PLATE (5.5 IN X 5.5 IN) + MUG (360 mL)/SET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엄마보다 한뼘 더 나아갈 딸의 삶을 위하여... '폭삭 속았수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운 오명연 기자= 노오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핀 제주도의 봄.

"섬 놈'에게는 절대, 네버, 시집 가지 않겠다"며 종알대는 단발머리 문학소녀 오애순(아이유 분)과 속상한 표정의 섬 촌놈 양관식(박보검)이 나란히 발을 맞춘다.

둘은 차마 손도 잡지 못한다. 애순이 짐짓 모른 척 자기 손을 관식의 호주머니에 찔러 넣자 관식은 애꿎은 자기 옷자락만 쥐느라 손 끝이 하얗게 질린다.

1960년대 풋풋하면서도 솔직하고, 투박하면서도 정겨운 그 시절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삭 속았수다' 속에서 재현됐다.

'폭삭 속았수다'는 시계를 한참 돌려 지금으로부터 60여년 전인 1960년대 제주도 앞바다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먹고살기 힘들던 그 시절, 팔팔한 잠녀(해녀)들 사이에서 큰 애순이는 꿈많은 소녀다. 시 쓰는 것을 좋아하고, 언젠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겠다는 포부를 안고 있다.

하지만 불운과 가난, 성별이 애순이의 발목을 붙든다.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었고, 엄마 광례(염혜란)도 새 가정을 꾸렸다.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

계집애가 공부를 잘하면 장손의 길을 막는다는 작은 아버지, 급

장(반장) 투표에서 이겨도 부잣집 애한테 양보하라고 호통치는 담임 선생님, 이부동생들이 클 때까지 살림을 맡아달라는 엄마의 전 남편 등이 애순의 꿈을 차례로 꺾는다.

예전처럼 자신을 지켜줄 엄마도, 몸을 빌 집도 없는 애순이는 막막할 따름이다.

그래도 애순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생선 집 아들 관식 덕분이다.

애순이 말마다나 '금도끼', '은도끼'는 못 되어도 믿음만한 '쇠도끼'인 관식은 애순이를 위해 부산으로 야반도주하기도 하고, 비바람이 치는 바다를 헤엄쳐서라도 애순에게 돌아간다.

그렇다고 드라마가 둘의 러브 스토리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 작품에선 남녀 간의 로맨스보다 모녀간의 사랑과 삶에 대한 애증이 더 진하게 묻어나온다.

무엇보다도 엄마에게서 딸에게로, 또 손녀에게로 이어지는 내리사랑이 눈에 띈다.

극 중 엄마들은 딸을 아끼기에, 자기 삶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광례가 악착같이 일하면서도 한사코 딸 애순이에게 잠녀를 시키지 않으려는 모습, 애순이 딸 금명이가 아궁이 앞에서만 살다 죽는 팔자가 아니길 비는 모습이 곱친다.

광례가 애순이가 식모처럼 지

내는 시댁에 갱판을 치고 조기 한 두름을 내던진 뒤 딸의 손을 끌고 나온 것처럼, 애순이는 금명이를 잠녀로 만들려는 시댁의 제사상을 뒤엎고 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선다.

애순이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 아이유가 1990년대 배경에서 성인 이 된 금명이로 나오는 것도 엄마의 삶이 딸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드라마는 어려웠던 시절을 그리면서도 따뜻함과 유쾌함을 잃지 않는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뜻의 제주방언을 제목으로 가져온 것처럼 드라마는 어려운 세월을 살아낸 애순과 관식,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 존중 어린 인사를 전한다.

이야기의 깊이에도 너무 무거워지지 않도록 곳곳에 재미있는 장면을 넣었다.

아들 관식이 못마땅할 때마다 "차라리 개를 키울걸"이라고 한탄하는 애순이 시어머니의 대사, 관식과 애순이가 사글셋방에 살면서 매일 뜨거운 신혼을 보내느라 전등을 끄려고 헛손질하는 장면은 웃음을 자아낸다.

광례가 죽기 전 어린 딸 애순이의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여주면서 "두고 보라, 요 꽃물 빠질 즈음 되면 산 사람은 또 잊고 살아져, 손톱이 자라듯이 매일이 밀려드는 데 안 잊을 재간이 있나"라는 대사



, 애순이가 쓴 '점복(전복) 팔아 버는 백환, 내가 주고 어망 하루를 사고 싶네'라는 동시에선 문학적 감성도 엿보인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대사나 표현을 보면 상당한 문학성을 띠고 있다"며 "토속적이고 해학적이면서 생각할 거리가 있는 대사가 눈에 띈다"고 말했다.

제주도 풍광과 방언, 시대상을 반영한 학교와 시장, 부두의 풍경도 극의 감칠맛을 더한다. 애순이의 봄을 상징하듯 유채꽃이 만발하고, 신록이 푸르른 제주도의 모습이 여러 차례 담겼다.

토속적이고 가부장적인 시대상을 반영한 디테일도 곳곳에 녹아 있다. 애순이가 돌하르방 코를 버릇없이 후려치자 시어머니가 기겁하고 코를 어루만진 뒤 기도하고, 여자들은 작은 상에서 생선 대가리와 탄밥을 먹고, 애순이가 땀 돌에 신을 벗자 못마땅해하며 이

를 내려놓는 시할머니의 모습에서다.

김교석 대중문화평론가는 "흔한 멜로처럼 흐르지 않고, 주변 인물의 서사까지 풍부하게 얹힌 실타래 같은 이야기"라며 "두 남녀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관계가 매력적인 데다가 제주도라는 지리적 배경, 시대적 배경이 더해져 서 빛을 발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또 시간순으로만 끌여가지 않고, 문소리·박해준이 연기하는 중년의 애순이와 관식의 모습이 사이사이에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늘어지지 않게 환기한다.

1960~70년대를 겪지 않았어도, 제주에 살지 않았더라도 보는 재미가 반감되지는 않는다.

'폭삭 속았수다'는 너무나 보편적이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을 받아 보는 방법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종이 신문 번갈아 매 격주로 발간됩니다. 보스톤 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매주 금요일 2만명의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으며, 평균 5천명이 넘는 독자들이 이메일을 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이란 제목으로 이메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매 격주 PDF 지면으로 이메일을 통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13) 주식 투자 실패 원인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주식시장이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다. 2년 연속 23% 그리고 24% 상승이다. 본인만 뒤쳐지는 것 같아 주식시장에 열심히 귀를 기울인다. 어느 종목에 어느 시점에 투자하는가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시점에 의한 투자 결정은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지기 쉽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본인의 재정 상황에 의해서 투자해야 한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주식시장 오르고 내림에 상관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이 없다. 주식을 사고 판다고 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투자가 아니라 도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하는 투자의 기본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투자하는 목적 진술서 작성이 필요하다. 투자 목적에 따라서 포트폴리오(Portfolio)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자금 마련, 집을 마련하기 위한 다운페이(Down Payment), 노후대책, 등 얼마만 한 시간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투자 위험성을 조절할 수 있다. 단기 기간에 필요한 자금은 방어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몇십 년 후의 은퇴 자금은 투자 위험을 더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기업 종목을 선택하거나 펀드 매니저가 운용되는 뮤추얼펀드를 선택하면 주식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겸손이 필수이다. 유망한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투자 비용이 매우 저렴한 인덱스 펀드나 ETF를 통해서 '평균' 수익률을 기대하면 투자한 자금이 불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금융 방송 등이 24시간 끊임없다. 그러나 CNBC와 Fox Business의 투자에 관한 소식은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가치는 없다. 단기 투자를 조장하여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미디어를 끄고 스마트폰에서 금융 앱을 삭제하는 것도 투자하는 데 유익하다.

투자하는데 은근과 끈기가 부족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금융 시장에서의 인내는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이다. 21세기의 첫 10년은 누적 1%의 손실로 미국 주식 투자자

들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대 10년은 연간 수익률이 13.4%, 그리고 지난 5년 연간 수익률이 무려 12.54%이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도 하지만, 그다음 10년 후는 놀라운 수익을 창출한다. 주식시장 역사가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큰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

옆집에 고급 자동차와 잦은 해외여행 소식과 어떤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심란하고 조급해진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투자 성과와 본인의 투자 성과를 비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투자 성공은 상대적인 성과가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친지들의 투자 성공 무용담(?)에 숨어있는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주식시장이 두려워서 너무 소극적으로 투자한다. 이것은 물가 상승만큼 수익을 받지도 못한다. 물가는 구매력을 연간 약 2-3% 감소시킨다. 현금 투자는 물가 때문에 매년 손실이 보장되는 것이다. 주식의 역사적 수

익률을 이해하고 주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주식 통계에 따르면 S&P 500은 어느 날 하루 하락할 확률은 46%이고 어느 한 해에는 손실을 볼 확률은 27%이지만, 10년 동안 손실을 볼 확률은 5%, 20년 동안 0%로 떨어진다.

금융상품에서 말하는 '투자보장' 유혹적인 말이지만, 낚시밥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변액 연금(어뉴이티), 주가지수 연금, 현금 가치 종신보험, 등은 투자와 보험을 혼합한 것이다. 이런 금융상품은 매우 복잡해서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상품을 만든 금융회사와 상품을 판매한 영업인은 수수료 등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투자한 사람은 그만큼 손실로 이어진다. 투자와 보험은 분리해야 한다.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은 투자 목적이 아니다. 동부에서 서부 여행할 때 어떻게 가는지 계획이 없다면 영원히 목적지에도 달하지 못할 수 있다. 제대로 하는 투자로 우리 모두 안락한 은퇴 생활로 이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디지털 신문의 기사읽기가 더욱 편해집니다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과 지면보기에서 이제는 기사 읽기가 더욱 편해집니다.

PDF면에서 기사 읽기가 불편한 독자들은 해당 기사의 오른쪽 칼럼 위에 **전체기사 읽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바로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의 기사로 연결되어 웹사이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성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2025년 부동산 전망

곧 봄 주택시장(Spring Market)이 시작된다.오늘은 많은 기관에서 예측한 올해에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써보겠다.

전미 부동산협회(NAR), 리얼터닷컴(Realtor.com), 레드핀(Redfin), 질로우(Zillow), 패니 메이(Fannie Mae), 모기지은행협회(MBA) 총6개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들이다.

이 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을 하나 하나씩 살펴 보겠다.

NAR - 전년보다는 상승 속도는 느리겠지만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2% 상승해서 미국 평균 집값이 \$410,700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26년에 2%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마디로 집값 폭락은 없을 것이며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모기지 금리는 2026년까지 6% 대 유지를 예상했다.

Realtor.com - 주택 가격은 2012년부터 계속 상승했고 올해 3.7%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매자와 매도인이 균형 잡힌 시장이 될 것이며,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집을 못 산 사람에게 올해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균 모기지 금리는 6.3% 예상하고

있다.

Redfin - 오늘 소개하는 6개 기관중에 Redfin이 가장 높은 주택 가격상승을 예상했다. 올해 집값이 4%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매물이 충분하지 않다고 예상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올해는 렌트 시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집을 못사는 사람들이 렌트로 몰리기 때문이다. 모기지 금리는 7% 가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Zillow - 올해 주택 가격은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기지 금리는 6.5% 정도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년에는 주택 구매가 치열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봤다. 가격 인하가 더 자주 발생할 지역은 중서부, 남부, 남서부지역을 예상했다.

Fannie Mae - 올해 주택 가격이 3.6%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2026년까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 모기지 금리는 6%에서 6.3% 정도 로예측했다. 패니메이는 올해 마켓이 2024년 과거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있다. 오른 모기지 금리로 인해 수요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MBA- 올해 주택 가격 1.5% 상승에 그치며 모기지 금리는 6.4%에서 6.6%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6개 기관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올해 2025년을 표현해 보자면 집값 상승 둔화라는 표현이 맞는것 같다. 집값 상승률은 대략 2-4% 정도선에서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모기지 금리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6%대에서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기준 금리는 하락하고 있으며 모기지 금리는 최근 들어 약간 내렸지만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

올해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할 부분은 물가와 고용시장이다.

물가가 내려가다가 현재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이다. 그랬다면 모기지 금리는 낮추기가 쉽지 않다. 현재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어 확실히 모기지 금리를 잡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개인적인 예상은 집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집을 사야하는 사람들은 많아서 집값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3월 16일 - 3월 22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p> <p>● 운수: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일은 시작하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 애정: 신뢰감은 자기의 틀 속에 상대를 꿰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틀을 버리고 먼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때 생기는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6, 21일 길일, 17, 18일 주의.</p>	<p>소띠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p> <p>● 운수: 개업의 시기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매매할 때는 철저하게 서류를 잘 챙기고 함부로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따라가지 마세요. ● 금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금전이 생기더라도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말 한마디에 쉽게 속상해하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7, 20일 길일, 18, 22일 주의.</p>	<p>범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는</p> <p>● 운수: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경우에 맞게 일을 처리하면 모두가 잘 따라줄 것입니다. ● 금전: 금전에 이득이 있으니 하는 일이 잘 되겠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사업의 계획을 바로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세요. ● 애정: 가까운 사람이 다리가 되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8, 21일 길일, 16, 19일 주의.</p>
<p>토끼띠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p> <p>● 운수: 냉정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내리는 시기를 잘 잡으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 금전: 현실에 만족하고 재물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투자 생각은 가능하다면 억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 애정: 어쩌서 저런 말을 할까 하는 원망부터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말을 했기에 이런 말을 듣게 되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8, 19일 길일, 17, 20일 주의.</p>	<p>용띠 상황의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p> <p>● 운수: 소송문제나 사업상의 경쟁에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 금전: 침착하고 차분하게 상황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문서와 관련해서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 애정: 남의 말보다는 사랑하는 이의 심중을 잘 살피는 사려 깊음이 있다면 무탈하게 잘 지나갈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6, 20일 길일, 18, 21일 주의.</p>	<p>뱀띠 서로 간의 대화가 통하고</p> <p>● 운수: 직장인이면윗사람의 도움으로 승진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시험 및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일에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 금전: 확장하고 넓혀 가는 즐거움이 있으니 이사를 해도 좋겠습니다. 매매도 이익이 따라주고 쉽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서로 간의 대화가 통하고 행복합니다. 활기가 있고 의욕적인 생활이 전개될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p>
<p>말띠 욕심은 금물</p> <p>● 운수: 발전을 기대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어도 엉뚱한 일에 과도한 욕심이 부리면 재물이 도로 사라지게 되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 애정: 적극적인 연애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만든 울안에 갇혀서 꿈만 꾸다가 지나가지 마세요. 02, 90, 78, 66, 54, 42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p>	<p>양띠 열성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p> <p>● 운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도록 도움이 되는 기운이 주위에 가득하니 희망적입니다.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늘어나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매매도 빠르게 성사되고 생각보다 큰 이익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이성 교제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도록 하세요. 용기가 있는 자만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7, 19일 길일, 18, 21일 주의.</p>	<p>원숭이띠 솔직하지 못하면</p> <p>● 운수: 친한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동업과 같은 것은 자칫 친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 금전: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더 큰 손실을 주게 될 뿐입니다. ● 애정: 바람이 가슴으로 새어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겠습니다. 솔직하지 못하면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7, 20일 길일, 19, 22일 주의.</p>
<p>닭띠 지키면서 유지해 나가는</p> <p>● 운수: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쌓아 올린 탑을 지키면서 유지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금전: 지금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잃느냐 얻느냐는 자신의 머리 회전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애정: 내게 돌아오는 이 말이 내가 던진 어떤 것 때문이라 생각해 보세요. 아주 많은 오해나 원망이 풀릴 길이 열립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6, 21일 길일, 20, 22일 주의.</p>	<p>개띠 즐거움이 함께 하는</p> <p>● 운수: 자신의 능력으로는 힘들겠으니 주변 사람의 의견을 듣고 힘을 빌려서 실행에 옮기세요. 사업은 번창하겠습니다. ● 금전: 오랜 기간 원하던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작은 이익도 발생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 애정: 즐거움이 함께 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로부터 애정이 듬뿍 담긴 편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6, 22일 길일, 20, 21일 주의.</p>	<p>돼지띠 좋은 조연도 받는</p> <p>● 운수: 유리한 조건으로 취업할 수 기회가 옵니다. 투자할 분야에 대한 좋은 조연도 받게 됩니다. ● 금전: 성실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면 생각지 못한 커다란 이익을 얻겠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미뤄오던 이성 문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애정의 주기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0, 21일 길일, 16, 22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매사추세츠주 웰즐리 (Wellesley, Ma) 에서 매주 일요일 아침 부터 저녁까지 치매에 걸린 연로하신 아버지를 도와주실 유 경험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joint@sent.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딱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봉준호 '미키 17' 북미 박스오피스 1위 ...수익은 기대에 못 미쳐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지난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한국 감독으로는 처음 이룬 기록이다.

다만 개봉 첫 주 흥행 수입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상당한 액수가 투입된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을 회수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 영화 흥행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봉 감독의 '미키 17'은 지난 7일 개봉해 주말 사흘간 북미 3천807개 상영관에서 1천910만달러(약 27억9천만원)의 티켓 수입을 올리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북미 외 지역에서는 3천420만달러를 벌어들여 전 세계 흥행 수입은 5천330만달러(약 77억7천만원)를 기록했다.

북미 외 국가 중에는 한국(첫주 900만달러)에서 거둔 수입이 가장 컸고, 프랑스(290만달러)와 영국(270만달러)에서 성적이 좋은 편이었다.

앞서 업계에서는 이 영화의 개봉 첫 주 북미 수입을 최대 2천만 달러가량으로 예상했었다.

할리우드 매체들은 이 영화의 흥행 성적이 예상치에 못 미치는 데다 투자배급사 워너브러더스 스튜디오가 투입한 제작비 1억1천800만달러(약 1천710억8천만원)를 회수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버라이어티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마케팅에 8천만달러(약 1천160억원)를 추가로 지출한 '미키 17'이 극장 개봉 기간 흑자를 내려면 전 세계적으로 약 2억7천500만~3억달러(약 3천987억~4천349억원)의 수익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데드라인은 "안타깝게도 이 오리지널 SF 영화의 수익은 워너브러더스가 예상



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워너브러더스에) 슬픈 주말이 됐다"고 짚었다.

'미키 17'은 시장조사업체 시네마스코어의 현장 관객 대상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인 'B' 등급을 받았다. 시네마스코어의 영화 등급은 A~F 중 매겨지는데, 주요 흥행작들은 대부분 A 등급을 받아왔다.

미국의 영화·드라마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는 이날 오후 평론가 점수 79%(100% 만점 기준), 일반 관객 점수 73%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봉 감독의 전작 '기생충'은 평론가 점수 99%, 관객 점수 95%를 받았었다.

'미키 17'에 북미 관객들이 매긴 점수는 봉 감독의 다른 전작 '살인의 추억'(92%), '마더'(89%)보다도 낮고, '설국열차'(72%)와 비슷한 수준이다.

워너브러더스의 글로벌 배급 담당 제프 골드스틴 사장은 "(전세계 수입) 5천300만달러로 시작한 것은 좋은 숫자"라면서도 "비용과 비교할 때는 더 도전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맥스 등) 프리미엄 포맷에서의 강점이 입소문을 높이는 데도

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아이맥스와 돌비 등 프리미엄 대형 상영관이 북미 티켓 판매의 47%를 차지한 것을 강조한 언급이다.

골드스틴 사장은 "관객의 47%가 이 영화를 프리미엄 포맷으로 관람했는데, 이것은 이 영화에 대한 영화 팬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봉 감독은 드니 빌뇌브, 쿠엔틴 타란티노, 크리스토퍼 놀란과 함께 팬들이 정말로 영화를 보러 가게 하는 몇 안 되는 유명 감독 중 한 명이다"라고 말했다.

AP통신은 앞으로 몇 주간 '미키 17'에 대적할 큰 경쟁작이 없어 스튜디오 측이 "장기적인 게임"을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주말 북미 극장가에서는 경쟁작이었던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개봉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데다 대형 배급사가 개봉한 신작은 '미키 17'이 유일했다.

박스오피스 순위에서 '캡틴 아메리카...'는 '미키 17'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고, 이어 '라스트 브레스', '더 몽키', '패딩턴: 페루에 가다!'(원제 Paddington in Peru) 등이 뒤를 이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로제 · 지민 · 리사 · 제니...BTS · 블랙핑크, 솔로로 영국 차트 활약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K팝 간판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멤버들이 솔로로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7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 로제의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APT.)는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전주보다 2위 하락한 13위로 20주 연속 진입했다.

'아파트'는 작년 10월 이 차트에 4위로 처음 진입했고 1주일 후 2위로 올랐다. 이후 5주 연속 3위, 4위, 5위, 28위 등을 기록했다.

새해 들어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던 캐럴이 대거 빠지면서 '아파트'는 순위를 다시 크게 끌어올려 6주 연속 2위를 차지했다. '아파

트'는 이후로도 8위, 12위, 11위, 13위를 기록하며 흥행 중이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솔로 2집 타이틀곡 '후'(Who)는 전주보다 21위나 '깜충' 뛰어오른 23위로 통산 27주째 차트에 올랐다.

또 블랙핑크 리사가 도자캣 · 레이와 협업한 '본 어게인'(Bom Again)은 전주보다 3위 오른 42위로 4주 연속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동료 멤버 제니가 미국 래퍼 도이치와 호흡을 맞춘 '엑스트라L'(ExtraL)은 전주보다 35위 하락한 72위로 2주 연속 진입했다.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에서는 리사의 솔로 1집 '얼터 에고'(Alter Ego)가 20위로 데뷔했다.

tsl@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명석 제39대 뉴욕한인회장 당선을 축하드리며...

지난 2025년 3월 8일(토) 오전 11시 KCS 회관에서 제39대 뉴욕한인회장 단독 후보로 나선 이명석 후보자 인준 절차를 위해 500여 명이 KCS 회관 강당을 사람이 오갈 수 없을만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400여 명의 투표를 얻어야 인준 절차를 마칠 수 있다며 가깝게 지내는 지인께서 연락을 주셨다. 사실 그날 매주 토요일이면 '맨해튼 선포외침전도' 를 나가는 시간과 맞물려 있어 고민을 하다가 참석을 했는데 길고도 긴 줄을 서서 투표를 하는 한인들의 모습에 감동하고 돌아왔다.

개회를 시작으로 사회자의 성원 보고가 있었으며 '대뉴욕한인상록회 국악반'의 공연이 이어졌다. 제38대 뉴욕한인회장 김광석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국민의례와 국기에 대한 경례, 이소영 다민족 뉴욕지부회장의 애국가 및 미국가 제창이 있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었다. 환영 및 보고에는 뉴욕한인회장 김광석 의장의 인사말과 함께 보고가

있었다. 보고의 순서로는 제38대 뉴욕한인회 활동 보고와 제38대 뉴욕한인회 재정 보고가 있었으며 뉴욕한인회관 현황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문화공연으로 KCS 고전무용팀과 현대무용팀이 무대에 올라 한인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주요 안건으로는 제39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상호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제39대 뉴욕한인회장 후보자 인준 절차(단독 후보: 이명석 후보) 진행이 있었다. 축하공연으로는 대뉴욕한인상록회 울크렐라 기타반의 연주가 있었고, KCS 코리아안댄스가 있었다. 제39대 뉴욕한인회장 인준 결과 및 신입회장 당선 공식 발표(여주영 선거관리위원장)가 있었다.

공식 및 마무리 시간으로 사회자의 안내가 있었고, 대뉴욕한인상록회 라인댄스를 끝으로 제38대 뉴욕한인회장 김광석 의장의 폐회로 제39대 뉴욕한인회장 인준 결과 및 신입회장 당선 공식 발표가 막을 내렸다

. 신입회장의 당선을 축하하며 모든 식순을 마치고 한인들이 모여 점심 식사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뿌듯했다. 500여 명이 다되는 뉴욕한인동포들의 지지를 받으며 제39대 뉴욕한인회장에 당선된 이명석 신입회장께 축하의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린다.

요즘 내 조국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과 혼돈의 때에 타국에 사는 이민자들과 특별히 뉴욕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각 처에서 회개와 울부짖는 기도는 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있다. 미국도 얼마나 어수선한가. 불법 이민자 본격 단속으로 언제 추방될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특별히 한인이민자들도 이에 속한 이들이 많아 더욱 마음이 아프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미국과 한국 모두가 하나님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 모두 이렇듯 정치, 경제, 사회가 불안정한 이 때에 내 조국 땅을 떠나 이

민자로 사는 세계의 중심지인 '뉴욕한인회' 는 그야말로 세계 각처에서 주목하며 움직임을 지켜보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제39대 뉴욕한인회 회장(이명석 당선인)과 뉴욕한인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화합하여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견뎌내어 명실공히 '뉴욕한인회' 이름이 든든히 서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이명석 제39대 뉴욕한인회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후보의 선출을 위해 남녀노소 500여 명의 한인들이 KCS 회관에 모여 북적대며 움직이는 모습만으로도 '뉴욕한인회의 희망' 이 보인다. 한인동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흐뭇하고 따뜻해진다. 이제 차근차근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뉴욕한인회 리더자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화합하는 일만 남아 있다. 이미 충분한 '뉴욕의 화합하는 아름다운 하모니' 를 보았다. 뉴욕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한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지갑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지갑이 사라져 가고 있다. 아예 종적을 감추고 있다는 거다. 요즘 한국의 쇼핑 환경이라 했고 현금 결제는 드물다 했다. 모두 카드가 아니면, 스마트폰이 해결한다는 거다.

앞뒤 사정이 이렇기에 지갑의 용도가 크게 바뀌었다. 크레딧카드 몇장만이 달랑거리는 데, 현금 은 찾을 수 없는 거다. 현금 지폐없는 지갑인 바.

예외는 있다. 한국에서이다. 경

조사엔 현금이 우세한데, 오만권이 제법 쓰인다고 한다. 그럴법도 하다. 결혼식이나 잔치식에서 카드를 긁는 건 뭔가 어색하다. 뽀뽀한 현찰을 흰봉투에 넣어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내는 거다.

요즘에도 그런가. 오래전 한국에선 지갑이 괜찮은 명절선물이었다. 아버지나 형에게 아니면 친구간에도 선물로는 괜찮았다. 지갑은 입학/졸업선물로도 훌륭했다.

나역시 지갑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다. 어릴적 친구에게서였는데, 대학입학 선물이었었던 거다. 그가 부끄러운 듯 곱게 포장된 지갑을 건넸다. 선물을 받으며 고맙다는 말은 잊지 않았다. 그런데, 그 지갑을 열심히 애용하진 못했다. 도무지 넣고 다닐 현금도 없었으

며, 크레딧 카드가 있을리 만무할 시절이었으니 말이다. 주머니엔 백원짜리 동전 몇개와 버스표가 전부였던 거다. 동전과 버스표를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건 어색하다.

내 지갑을 열어봤다. 20불짜리 지폐 두어 장. 크레딧카드와 일터 카드키 한장이 운전면허증과 함께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지갑은 여전히 잘 쓰이고 있다는 말과 같다. 내가 소시민 중에 하나라는 걸 증거하는 거다. 아참, 잊은 것도 있긴 하다. 몇장 명함도 같이 한다. 명함이야 이젠 쓸일이 덜하긴 하다.

지갑과 명함은 시에도 등장한다. 이재무 시인이다. 버리는 것들 이란다.

저 못된 것들 좀 보소흐르는 냇물 시켜가지 밖으로 얼굴 내민 연

초록 시켜지갑 속 명함을 버리라 네기어이 문제야가 되라 하네(이재무, 저 못된 것들 중에서)

미국 부자들은 다른 모양이다. 여전히 지갑에 현금을 넣고 다닌다고도 했다. 얼치기 부자들인가? 돈을 소중히 여겨서 그러한가. 아무튼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구기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다고 했다.

미국 지폐는 색깔이 같다. 크기도 일정하다. 지폐를 쓸일이 있다면 지갑에서 꺼내 재삼 확인해야 한다. 1달러짜리인지, 5불이나 20불짜리인지 자주 헛갈리기 때문이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따가 6:8)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오전 4시간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69만원 ~**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120만원 ~**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40만원 ~**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2일간 진행(오전 검사 시행) **437만원 ~**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 | |
|--------------|-------------|
|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 세란병원(독립문역) |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50대가 가장 많아" 여성 위협하는 유방암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여성을 위협하는 질환 중 가족력 있다면 더욱더 주의해야 유방암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외과 과 역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유방암은 유방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진행되면 멍울이 만져지며, 유두 및 유륜이 헐거나 진물이 난다.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지기도 한다. 암세포가 발전해 림프계나 혈류 등 다른 장기에 전이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0기 때는 5년 생존율이 98.3%나 되지만 4기가 되면 34.0%로 떨어진다. 그만큼 유방암은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다.

Q. 유방암 분류
유방암은 산발성, 유전성, 가족성으로 분류합니다. 그 가운데 산발성 유방암은 전체 환자의 80~90%를 차지하는데, 에스트로젠이라는 여성호르몬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초경이 빠를수록, 폐경이 늦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 집니다.

Q. 가족력이 있다면, 유방암은 무조건 유전되나요?

유방암은 유전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성·가족성 유방암이 가족력과 관련 있습니다. 전체의 5~10%를 차지하는 유전성 유방암은 가족에게 유전적 소인을 물려받아 발병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환자의 2/3 정도는 브라카(BRCA 1·2) 유전자변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등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가족성 유방암은 전체의 10~15%를 차지하며, 유전자 변이가 가족이 공유하는 생활·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방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 40세 이하에 유방암을 진단받았거나 만 60세 이하에 삼중 음성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 △양측 유방 모두 유방암일 때 △유방암과 함께 난소암 또는 췌장암이 발생한 상황 △3등 친 이내 친족(증조부모, 증손주, 부모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 등) 가운데 1명 이상 유방암, 난소암, 전이성 전립선암, 췌장암을 진단받은 경우 등일 때 검사를 권고합니다. 남성도 동일한 경우 검사가 필요합니다.

Q. 폐경기에 발병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폐경기의 유방암 발병과 관련해 여러 가지 요인이 거론됩니다. 우선 여성호르몬에 오래 노출되면 유방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주로 경구 피임약이나 폐경 후의 호르몬 치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령의 발병 위험을 독단적으로 결정짓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나 비만 등은 유방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건강한 식생활

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Q. 유방암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 이후 재발률을 낮추는 보조적 목적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조 치료 방법은 병기에 따라, 또한 유방암의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암 치료 혹은 표적 치료는 국소 치료인 방사선 치료와는 달리 전신 치료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구토, 전신 쇠약, 식욕 부진, 탈모, 신경독성, 무월경 등의 증상을 호소합니다만, 환자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 및 증상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료진들과 적극적인 상담으로 부작용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완화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진행하기도 하고, 수술적 치료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우유, 콩 등이 오히려 유방암을 유발하나요? 어떤 음식이 예방에 도움을 주나요?

어느 한 가지 음식이나 재료가 유방암을 유발한다거나, 유방암을 예방한다고 명확하게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든지 한 가지 재료나 음식만 섭취한다면 전반적인 건강 기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유나 콩 등의 유제품이 유방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

이 아니며, 유제품을 포함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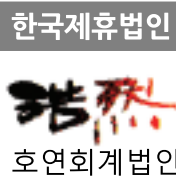
곽영지 교수의 최종 솔루션
유방암 조기 검진을 위해 자가 촉진 방법을 추천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샤워하면서 유방 모양을 관찰하고, 평소와 다르게 멍울이 만져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크기가 작거나, 미세석회화로 주로 나타나는 상피내암 병변은 촉진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 유방 선별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 유방암 가족력은 혹은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검진 대상 시기 이전이라도 유전 상담을 포함한 유방외과 진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즉 유방암은 증상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질환이므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기를 바란다.

"50대가 가장 많아" 여성 위협하는 유방암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MFA 에서

만나요 ▶ ▶ 봄 이 이벤트

▶ 아트 ▶ 프로그램 ▶ 이벤트 ▶ 커뮤니티 ▶ 아트 ▶ 프로그램 ▶ 이벤트 ▶ 커

특별 이벤트

노루즈

- ▶ 3월 20일 목요일
- ▶ 오후 5-10시
- ▶ 입장료 5달러



특별 이벤트

MFA 레이트 나이트

- ▶ 3월 28일 금요일
- ▶ 오후 8시-새벽 1시

전시

벤 고흐: 롤린 패밀리 초상화

- ▶ 3월 20일 오픈



MFA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Nowruz: Caitlin Cunningham Photography MFA Late Nites: Tim Correia Photography
Vincent van Gogh, *The Postman Joseph Roulin*, 1889. Oil on canvas.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Gift of Mr. and Mrs. William A. M. Burden, Mr. and Mrs. Paul Rosenberg, Nelson A. Rockefeller, Mr. and Mrs. Armand P. Bartos, The Sidney and Harriet Janis Collection, Mr. and Mrs. Wener E. Josten, and Loula D. Lasker Bequest (all by exchange), 1989. Photo Credit: Digital Image © The Museum of Modern Art/Licensed by SCALA / Art Resource, NY.

▶ 방문은 mfa.org에서 시작하세요



FROM JOSEON DYNASTY TO SALEM

Night of Fundraising for the
Opening of **Yu Kil-Chun Gallery**
of Korean Art and Culture

April 5, 2025 | 6 pm

NATICK ELKS LODGE | 95 SPEEN STREET | NATICK, MA 01760

유길준 갤러리 한국관
오픈 후원의 밤
조선에서 세일럼까지

P | E | M
Peabody Essex Museum

Artist in Korea, Fan (taegekseon) (detail), 18th century. Paper, lacquer, and wood. Gift of Edward Sylvester Morse, about 1900. E4439. Artist in Korea, Rank badge with two cranes and clouds for a civil official (hyungbae) (detail), 19th century, Embroidered silk. Gift of Gustavus Goward, 1899. E9785. Artist in Seoul, Korea, Bridal robe (hwarot) (detail), late 18th century. Silk, paper, cotton, wool, and metallic thread. Gift, 1927. E20190.F. Artists in Korea, Screen painting, 19th century. Silk, wood and paper. Museum Purchase, made possible by W.C. Endicott and George A. Peabody, 1927. E20262.A. 태극선 (부분), 18세기. 종이, 옷칠, 나무. 1900년경 Edward Sylvester Morse 기증. E4439. 쌍학홍배 (부분), 19세기. 비단에 자수. 1899년 Gustavus Goward 기증. E9785. 활옷 (부분), 18세기 후반. 비단에 자수, 종이, 면, 양모, 금속. 1927년 기증. E20190.F. 평안감사 환영도 (부분), 19세기. 비단에 채색. 1927년 W.C. Endicott와 George A. Peabody의 후원으로 박물관 구입. E20262.A.



Letterly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창간 20주년 기념, 온라인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

좋은 글쓰기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좋은 읽기 및 글쓰기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이들의 English 읽기, 글쓰기 실력이 걱정되세요?

미국 대학 입시의 성패는 결국은 글쓰기로 좌우됩니다.
대학들은 커먼 에세이, 주제별 글쓰기, 긴 글쓰기부터 짧은 글쓰기까지
모든 것을 원합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짧은 글쓰기로 주제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명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 훈련이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앞둔 11, 12학년 때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그 이후 커리어에서도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글쓰기를 어떻게 배우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3주간 아이의 글쓰기 실력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보스톤코리아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영어 작문 전문 교육기관인 Letterly와 손잡고
온라인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를 개최합니다.
영어 글쓰기 교육기관인 Letterly는 Robinhood, Epipelagic Ventures 등의 벤처 투자를 받은
전도양양한 영어교육 스타트업입니다. 글쓰기 교사들은 모두 하버드와 유펜 등 명문대 출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월말까지 등록시
10% 할인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란?

창간 20주년을 맞은 보스톤코리아는 영어 글쓰기 교육기관인 Letterly와 손잡고 여름 방학동안 자녀들의 영어 읽기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는 3주 동안 주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대1 글쓰기 선생님과 매일 정해진 글을 읽고 주어진 주제에 따라 한편의 기사 또는 에세이 글을
작성합니다. 선생님의 피드백을 활용하여 논리를 강화하고, 문장을 더 명확하게 하며, 글을 완성도 높게 수정합니다.
이 글들은 선생님들의 2차례 피드백을 받아 논리를 강화하고 문장을 더욱 명확하게 하며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편집 수정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매주 한차례씩 선생님들과 라이브 온라인 미팅을 통해 수정과정을 지도받습니다.
완성된 글들은 letterly 온라인 매거진과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 출판되어 게재됩니다.
학생들의 작문 실력은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성장 과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특징

기간: 3주간 집중 프로그램
(6, 7, 8월 3차례)
6월 9일 - 27일, 7월 7일 - 25일,
8월 4일 - 22일
수업 방식: 온라인 1:1 맞춤형 지도
일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교육 내용:
매일 지정된 글 독해
주제별 기사 및 에세이 작성
전문 코치의 이중 피드백
주 1회 라이브 온라인 미팅을 통한
수정 지도

특별 혜택

-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한 학생
개인별 성장 과정 모니터링
- 전문가의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한 글쓰기 실력 향상
- 완성된 글은 Letterly 온라인
매거진과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
- 우수작품 선정 보스톤코리아
장학금 및 작품 게재

기대효과

- 논리적 사고력 강화
- 명확한 문장 구사력 향상
- 전문적인 글쓰기 편집 기술
습득
- 실제 출판 경험을 통한 자신감
향상